

# Best Partner, First Company로의 도약

GS건설(주)

**희** 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5년은 원자력계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

지난 2003년 발주되었으나 관련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의 실시 계획이 승인되어 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19년간 표류해왔던 대표적 사회 갈등 과제인 방폐장 부지 선정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GS건설은 수주 8조 2천억, 매출 5조 6천억의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

지난 2003년 7월 계약 체결된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는 관련 인허가 지연 등으로 당초 2005년 2월로 예정되었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2007년 6월로 약 28개월 지연되었으나, 충분한 시공 준비 기간을 거치며 본공사 착수에 완벽하게 대비하여 왔다.

GS건설은 신월성 1,2호기 공동도급사인 대우, 삼성과 더불어 선행호기의 기술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초로 도입되는 심층 취·배수 설비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품질시스템의 점검과 발주처의 원전 건설 관리 시스템(NPCMS)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민원, 안전, 환경, 악천후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시공 준비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1일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하여 예정된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는 GS건설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원전 건설 공사로 지난 1993년 ASME CERTIFICATE 취득으로부터 시작된 숙원 사업 진출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공사뿐만 아니라, 태안화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 Turn Key로 수행한 부곡복합화력발전소, 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양한 발전 사업 성공 경험과 외부영입을 통해 확보한 핵심적인 원전건설 유경험 인력의 조화를 통해 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여 완벽한 품질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의 Major Player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신월성원자력 1,2호기는 국내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10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0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국내 발전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GS건설은 2006년을 맞이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및 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발전 및 에너지 사업에 핵심 역할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룹 차원에서 발전 및 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 1996년 7월 국내 최초의 천연가스(LNG) 분야 민자 발전 사업자로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민자 발전 회사인 LG에너지 지분을 지난해 연말 인수하고 사명을 「GS EPS」로 변경하였다.

GS EPS는 현재 충남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 내 12만 5000평의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총 538MW의 설비 용량으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6기까지의 발전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고 있다.

GS EPS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LNG복합화력 후속기 건설을 비롯,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벌인다.

이를 통해 국내 대표적인 민간 발전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발전 에너지팀에서 Turn Key로 수행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유통/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하는 그룹 지주 회사인 GS는 종합 에너지 서비스 회사인 「GS칼텍스」, 광주 및 경주 지역에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해양도시가스」와 「서라벌도시가스」 950MW 규모의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 및 지역 난방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GS과워」, 그리고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GS퓨얼셀」을 에너지 분야 자회사로 갖고 있다.

GS건설은 발전 사업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연구원을 주관 연구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동서발전(주)와 함께 인천만 조력발전과 울돌목 조류발전 등 해양 에너지 지원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해양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한수원과 함께 인천만 조력 발전 사업에 119 억원을 투자하여 연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발전 사업

GS건설은 국내의 다양한 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경험과 해외에서 인정받은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그룹의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발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해외 발전 사업을 전담할 해외발전팀을 신설하였고,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의 전력 사업 경험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230kV & 132kV Substation 및 연관 공사를 1990년에 Lum-sum Turn key로 수행하였다.

또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도 TL/DL 및 Substation Project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경우, 호찌민시에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며, 본 프로젝트와 연계한 발전 사업도 준비중이다.

GS건설은 2004년 10월 호찌민시와 도로 건설 및 주택 사업에 관

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GS건설은 호찌민시 도로 건설 및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첫 사업으로 총 1억5천만달러 규모의 호찌민 도로 공사를 수행한다.

이 공사는 국제 공항이 위치한 탄손낫(Tan Son Nhat)에서 빙르이(Binh Loi)를 거쳐 린수완(Linh Xuan)에서 호찌민시 외곽 순환 도로에 연결되는 약 14km 구간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번 도로 공사 대금으로 도심 상업 용지 약 4천평과 남사이공에 인접한 나베(Nha Be) 지역 약 100만평 등 지역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획득, 대형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본 개발 사업을 통해 호찌민시 도심 4천여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오피스,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5만평 54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 빌딩을 건립하고, 도심에서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나베 부지에는 100만평 규모의 도심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위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현재 30여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소중한 경험과 무형의 자산을 전력 사업 수행 역량

과 결합하여 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진중인 장기적인 원자력 도입 프로그램에도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 Best Partner First Company

GS건설은 2002년 「Vision 2010」을 선포하고 그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Creative Solution을 통한 공간 가치 극대화로 신뢰받는 Best Partner First Company가 되기 위해 Proactive People, Advanced Technology, Digitalized System을 Core Value로 하여 Vision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괄목할만한 경영 성과와 더불어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결과를 이루었다.

새해에는 그 동안 추구하였던 성장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수익성을 포함한 내부 역량의 균형된 조화로 정의할 수 있는 '가치 성장'을 위해 Cost Innovation의 실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GS건설은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및 에너지 사업을 비롯한 모든 고객의 Best

Partner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기업을 상대로 무한 경쟁하는 진정한 First Company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곧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GS 경영 이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 맺음말

GS건설은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도 진정한 Best Partner First Company가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는 신형 경수로인 APR-1400,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 등 원자력 연관 사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신설된 「해외발전팀」은 장기적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원전 사업의 수출 산업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05년 한 해는 원자력 산업계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난제가 해결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6년은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재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원자력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